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생산적 금융</li><li>• 신뢰받는 금융</li><li>• 포용적 금융</li></ul>
	보도	배포시	배포	2018.5.21.(월)	
책 임 자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(02-2100-2610)		담 당 자	박 보 라 사무관 (02-2100-2613)	

금응위원회

- 생산적 금융
- 신뢰받는 금융
- 포용적 금융

## 보도

배포

## 책 임 자

**담 당 자**

제 목 :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

\* '18.6.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(원칙3년, 예외3년)으로 단축

### <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요 >

☐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,

○ 그로 인한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 
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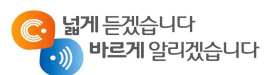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간 약 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,
  -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
-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,
  - 특히,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,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힘
-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,
  -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,
  -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,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음
- 정책당국도 ‘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’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,
  -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

[붙임] 간담회 모두말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

□ **(목적)** 채무자회생법 개정\*에 따른 금융권 영향 및 개인채무자  
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

\* '18.6.13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(5년→3년)하는 개정안 시행

□ **(일시/장소)** '18. 5. 21(월) 10:00~11:0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□ **(주요 참석자)**

- 금융위원회 : 부위원장, 중소서민금융정책관, 서민금융과장
- 금융감독원 : 금융소비자보호처장
- 관련기관(3) : 신용회복위원회(위원장), 서울회생법원(유철희 판사),  
대한법률구조공단(장재덕 서울개인회생·파산지원센터장)
- 금융협회(4) : 은행연합회, 여신금융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 
한국대부금융협회
- 전문가(5) : 구정한 박사(금융연 서민금융연구실장), 박창균 교수(중앙대),  
조성목 원장(서민금융연구원), 정운영 의장(금융과행복네트워크)

□ **(행사계획)**

시 간		주요 내용	비고
10:00~10:05	(5')	• 부위원장 모두 말씀	언론 공개
10:05~10:07	(2')	(기자단 퇴장 및 장내 정리)	
10:07~11:00	(53')	• 참석자 의견청취 및 대화 - 법원별 변제기간 단축시행 현황 및 분석 -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정책 방향 제언	